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09	10. 16	10. 23
대 표 기 도	노지민 성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노지민 성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9월 축복인사 - 감사하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일 년 동안 베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식사교제 있습니다.
5. 청년 소모임 - 천교 후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고국 방문	김복자 권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추수감사절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89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골 3 : 15 - 17(신p327)..... 정용현 안수집사
(Kolosser 3:15-17)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노지민 성도

† 기도제목

1.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감사의 예물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평소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던 그 여인이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 목사님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열 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그 애가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나 보군요?’

‘아닙니다. 일 년 가량 시름 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 드릴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에 비례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동예화 200선 / 고성주 목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보세요